

〈발표1〉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실천 - 부산시 노인요양원 직원의 집단 인터뷰를 통해 -1)

구가 히로토[Kuga Hiroto](일본 동지사대학)

I. 문제의 소재 및 연구 목적

사회복지실천은 그 나라나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사회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 실천에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은 물론 인간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 등, 이른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한 나라나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실천이 그들의 실질적인 삶에 근거하여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의 연구나 실천에 있어서도 「고향」이나 「국적」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2006년, 부산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 이용자 및 그 가족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특성」을 추출하고, 서비스 이용 의식을 비롯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등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한국은 유교 사상에 근거한 생활 양식으로서의 「유교 문화」가 뿌리깊이 자리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인의 사회적인 규범이나 행동 양식으로서의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2006년 8월, 부산시의 노인 요양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는 시설 이용자 및 그 가족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 개 시설에서 20명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질문 항목으로는 「①이용자나 그 가족의 시설 이용에 대한 의식」, 「②이용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민」, 「③이용자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결과의 분석 및 고찰에 있어서는 우선 녹음한 인터뷰의 내용 전체를 기록화하여 연구 협력 및 통역을 맡은 손희숙씨(도시사(同志社)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와 함께 확인하였고, 응답자의 답변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응답자와 직접 전화를 통한 확인 후 내용을 확정했다.

1) 본 연구는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 2005~2007년도 기반연구B 「Social work과 동아시아·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연구대표자: 구로키 야스히로(黒木保博), 도시사(同志社) 대학 사회학부 교수)의 조성에 의한 연구 성과의 일부임을 밝혀둔다.

다음으로, 전체 내용의 분석에 있어서는 먼저 대범주화를 설정하고 개개의 응답을 분류했다.

【인터뷰 내용의 범주화】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자 본인의 감정 ① 시설이용의 체험과 그에 따른 감정 ② 가족에 대한 감정	3. 시설 이용후의 감정의 변화 4. 직원과의 관계와 역할 ① 이용자와의 관계와 역할 ② 가족과의 관계와 역할
2. 시설이용에 대한 가족의 감정 ①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② 시설과 시설이용에 대한 의식	

이렇게 대분류된 내용을 한층 더 세밀 하게 분류(중범주화)하여 분석 및 고찰을 실시했다. 각각의 범주화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1, 2, 3, 4는 대범주화, ①, ②는 중범주화의 항목이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 및 고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층 더 세밀한 분류(소범주화)를 통해 내용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의 개요

직원들의 응답을 통해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에 대해 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저항감은 자신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수치스러움」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용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노후를 보내는 것이나 혹은, 자식들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고 있었던만큼 시설이용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때로는 가족에 대한 미움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시설 이용자에게 있어 가족의 존재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시설 입소 후에도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가족들이 갖는 의식으로는 유교의 주요 가르침인 「효」 사상, 즉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효」로서의 부양 의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시설 입소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부모에 대한 「죄의식」이나, 시설 직원에게 갖는 「미안함」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끄러움으로 의식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비록 장소를 달리하여 생활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있어서 가족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입소 후의 가족과의 관계는 이용자의 시설에서의 생활의 안정을 좌우할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설입소 이후, 이용자와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의 유지가 이용자의 시설에서의 생활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서의 생활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용자에 대해, 직원들은 「가족적인 분위기」나 「가족과 같은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족에 대해서는 시설의 프로그램에의 그들이 참가할 것을 유도하는 등, 가족과 시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시설입소 이후에도 직원의 계속적인 개입을 통해 이용자와 가족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시설 입소 후의 이용자 본인과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의 구축도 시설 직원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며, 나아가 시설에서의 이용자의 생활의 안정에는 가족들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직원」의 삼자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파악하려는 원조관을 발견할 수 있다.

IV. 고찰

1. 시설 이용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목표와 역할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이나 가족 의식이 시설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용자와 그 가족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실천을 전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유교 문화」에 근거한 가족 의식이 시설 이용에 대한 저항감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용자는 입소 후에도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는다. 그러나, 비록 가족과의 동거가 불가능하더라도 이전에 가졌던 가족과의 유대감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시설에서의 생활은 안정을 얻게 된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나 역할은 가족과 시설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시설 이용자와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시설이용 후에도 변함없는 지속되는 가족 관계와 가족 상호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이용자의 시설에서의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용자의 시설에서의 생활의 안정은 시설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가 가족과 같은 관계를 체험하는 것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시설 이용자가 안도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실천에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과 함께 있는 행복」을 위한 지원

가족과의 유대를 중요시 하는 가족 의식의 강함은 한국인의 의식에 잠재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유교 문화」라 할 수 있다.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부모와 별거하는 세대가 늘어날 것이 예측되지만,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삶을 지지함에 있어 그들 가족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그리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노력만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이 불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다. 「유교 문화」의 영향이, 예를 들어 가족 부양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혹은 시설 이용에 대한 저항감을 증대시키고, 때로는 그로 인해 가족 관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호의 사회화와 『효』 사상의 양립」이 선행적으로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개호의 사회화」란, 개개의 가족이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마저 「사회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즉 가족이 지금대로의 가족으로 존속하여 부모와 자식이 이전대로의 부모와 자식으로 계속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가 이전처럼 애정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것도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역할일 것이다. 이처럼 「유교 문화」에 근거한 「가족과 함께 있는 행복」을 존중하고, 개개의 이용자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의 구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